

방탄소년단 “그래미”가 마지막 조각”...수상하면 ‘그랜드슬램’

내년 1월 31일 열리는 시상식에 7개 부문 후보 지원 외신들 “방탄소년단, 그래미 후보 지명 가능성 높다”

“그래미가 마지막 조각인 것 같아요. 마치 미국 여정의 마지막 장인 것처럼.”(RM)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마지막 여정을 시작한다. 24일 오전 9시(한국시각 25일 오전 2시) 발표되는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노미네이트될 지 관심을 끈다.

방탄소년단 리더 RM은 23일(현지시각) 공개된 미국의 저명한 남성 잡지 ‘에스콰이어’의 ‘윈터(Winter) 2020/21’ 커버 모델 인터뷰에서 그래미 어워즈에 대해 “후보에 오르면 좋고, 될 수 있으면 수상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티스트, 작사가, 제작자 등이 속한 음악 전문가 단체인 미국 레코드 예술과학아카데미(NARAS)가 1959년부터 주최해온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 받는다. 미국이 팝의 본고장인 만큼 세계 대중음악계 시상식의 성지로 통한다. 총 84개 부문의 수상자를 가린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내년 1월31일에 열리는 이번 시상식에 7개 부문 후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발매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 : 7’로 ‘올해의 앨범’, ‘베스트 팝 보컬 앨범’ 등에 후보로 지원했다. ‘맵 오브 더 솔 : 7’은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방탄소년단은 연신 K팝의 새 역사를 써왔다. 영국 런던 웹블리를 비롯한 스타디움 월드투어, ‘빌보드200’ 1위에 이어 최근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1위까지 K팝의 전인미답을 개척해왔다.

팬덤 ‘아미들’ 사이에서는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예연이 화자되고 있다. 슈가는 ‘미스트라다무스’(민윤기+노스트라다무스)라는 수식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이 언급했던 방

탄소년단 목표를 멤버들과 함께 다 이뤄냈다.
‘빌보드 200’ 1위, ‘핫 100’ 10위권 진입은 일찌감치 이뤄졌고 그가 “이왕이면”이라며 바란 ‘핫 100’ 1위, 스타디움 투어도 성사됐다. 이제 슈가의 발언 중 ‘그래미 수상’만 남았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와 함께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통하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는 수상했다. ‘그래미 어워즈’만 수상하면, ‘그랜드슬램’이 달성된다.

방탄소년단은 그래미 어워즈와 차곡차곡 인연을 쌓아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그래미에 대한 열망을 처음 품은 건 연습생 시절이다. 2009년 2월 ‘제5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타이아(T.I.), 릴 웨인(Lil Wayne), 엠아이에이(M.I.A.), 제이지(Jay Z)가 함께 ‘스웨거 라이크 어스(Swagger Like Us)’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나서다.

‘스웨거 라이크 어스’는 타이아가 2008년 발매한 여섯 번째 앨범 ‘페이퍼 트레이일(Paper Trail)’에 수록된 곡으로 당시 그래미상 듀오/그룹 랩 퍼포먼스 부문을 받았다.

RM은 최근 발매한 새 앨범 ‘BE(Deluxe Edition)’ 글로벌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타이아, 제이지, 엠아이에이가 수트를 입어 무대를 했는데 흑백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멋있게 무대를 하는 걸 계속 돌려 봤어요. 그리고 그래미를 둘러싼 수많은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왜 세계 팝아티스트들이 미국 시상식인 그래미를 꿈꾸는 건 지에 대해 생각해볼게 됐죠. 제가 봤던 그래미 무대 중 세 손가락에 꼽힌다”고 말했다.

중고등학교 시기에 들은 음악이 깊은 인상에 남는다는 그는 “성장기에 큰 발자국을 남긴 만큼 이후 그래미를 막연하게 꿈꾸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후 지난 2019년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와 마침내 직접적인 인연을 맺는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당시 ‘R&B 앨범’ 부문을 시상하려 무대에 올랐다.

아울러 2018년 5월 발표한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앨범 패키지를 디자인한 허스키 폭스가 당시 ‘베스트 레코딩 패키지’ 부문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수상은 불발됐지만 후보에 오른 것 만으로도 힘합, 아시아 가수들에게 인색해 보수적이라는 평을 들어온 그래미어워즈가 철옹성을 깨나가고 있는 증거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 초 ‘제62회 그래미 어워즈’에서는 퍼포머로서 무대에 올랐다. K팝 가수 최초였다. 방탄소년단은 빌리 레이 사이러스, 디플로, 메이슨 램프 등과 함께 미국 스타 래퍼 릴 나스 엑스가 주축이 된 특별 무대 ‘올드 타운 로드 올스타즈’에서 협업 공연을 선사했다.

사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주요 대중음악 시상식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 받는 동시에 “백인이 아닌 음악가”에게는 박한 대접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방탄소년단이 ‘제62회 그래미 어워즈’에 K팝 가수 최초로 퍼포머로서 무대에 오르기는 했지만, 이들의 명성에 비해 주어진 무대 분량을 짧았다.

지난 1월 ‘제62회 그래미 어워즈’를 앞두고 지난해 11월 주최 측인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가 후보를 발표했을 당시 갑론을박이 따랐다.

미국 팝계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 84개 카테고리 어느 부문에도 후보로 지명되지 못해 여전히 보수적인 색채를 지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경제 전문 포브스는 ‘BTS의 2020년 그래미 별달이 레코드예술과학아카데미의 명성을 드러내다’는 제목으로 ‘그래미 어워즈’의 이번 시상식 후보 선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올해는 ‘핫100’ 1위로 미국 내 대중적 인기까지 확인한 방탄소년단의 후보 지명



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버라이어티는 “지금까지 후보 지명을 받은 적이 없는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 발매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빌보드는 최근 ‘제63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를 예상하면서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로 주요 상 중 하나인 ‘레코드 오브 더 이어’(올해의 레코드)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빌보드에 따르면, ‘다이너마이트’가 ‘레코드 오브 더 이어’ 후보가 된다면, 엔싱크의 ‘바이 바이 바이’ 이후 해당 부문 후보에 20년 만에 보이그룹이 된다. 또 빌보드는 해당 부문의 유력 후보로 빌리 아일리시 ‘에브리싱 아이 원티드’, 포스트 말론 ‘서클즈’ 등을 꼽았다.

‘레코드 오브 더 이어’는 최고의 노래에게 주어지는 ‘송 오브 더 이어’, 최고의 앨범상에게 수여되는 ‘앨범 오브 더 이어’ 그리고 신인상인 ‘베스트 뉴 아티스트’와 함께 그래미 주요 4대 상으로 통한다.

이와 함께 AP통신은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에 후보로 지명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이 언론사는 K팝 간판 걸그룹으로 떠오른 블랙핑크가 ‘베스트 뉴 아티스트’ 후보로 거명된다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방시혁 의장은 그래미어워즈를 주최하는 미국레코딩아카데미 회원이기도 하다. 이 상태로 뻗어나간다면, 방탄소년단과 방 의장이 수상자 명단도 오를 날도 멀지 않다.

진은 최근 간담회에서 “이루고 싶은 건 그래미예요. 우리에게 너무 영광스럽게도 빌보드 ‘핫100 1위’라는 성적이 있지만, 그래미에서 우리 이름이 한 번 불렸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M도 “저희도 굉장히 사실은 긴장하고 기대하면서 25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마 잠 안 자고 지켜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미스트롯2’ 마스터 군단 15명 공개...임영웅→손준호 합류

내달 첫 방송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2’에 ‘미스트롯’ 토크, 가수 박선주, 뮤지컬 배우 손준호, 트로트 가수 김용임, 배우 김영욱이 심사단에 새로 합류한다.

‘미스트롯2’ 제작진은 24일 기존 마스터 트로스 가수 장윤정, 진성, 뮤지컬 배우 김준수, 작곡가 조영수, 가수 신지, 방송인 붐, 장영란과 새로 합류한 토크, 박선주, 손준호, 김용임, 김영욱 등 15명으로 구성된 마스터 군단을 공개했다.

기존 마스터 장윤정, 조영수, 미스트롯 토크6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를 비롯해 기존 ‘미스트롯’과 ‘미스트롯2’를 통해 발군의 원색 발굴 감각을 뽐냈던 진성, 신지, 김준수, 붐, 장영란이 먼저 최종 합류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전 시즌에서 마스터로 활약하며, 기존 참가자들이 갖고 있던 흥그리 정신과 트로트 정서 등에 대한 축적된 데이터를 갖고 있는 만큼 좀 더 다양한 시각을 통해 참가자들의 다채로운 매력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뉴페이스로 박선주, 손준호, 김용임, 김영욱이 힘을 보탠다. 박선주는 “보컬의 기본기에 대해 날카로운 시선으로 살펴 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따뜻한 조연뿐 아니라 참가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카로운 평도 서슴지 않을 예정이다.

손준호는 특유의 음악적 감각으로 참가자



들의 장단점을 콕 집어내며 이들에게 딱 들어맞는 맞춤 조언을 전한다.

관록의 트로트 가수 김용임과 배우 김영욱은 특별 마스터로 참여해 긴 시간 각자의 분야에서 터득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여자들 본인에게 잘 맞는 음악 분야를 짚어내는 평을 한다.

제작진은 “압도적 기량의 실력과 뿐 아니라 기발한 퍼포먼스로 무장한 참가자 등 각양각색 지원자가 참여해 마스터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미스트롯’ 시즌1, ‘미스트롯’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문화계 판도를 바꿔내겠다는, 마스터들의 야심이 현실이 될 ‘미스트롯2’의 원조 파워를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미스트롯2’는 12월 처음 방송된다.

박신혜 “코로나 음성...‘쿨’ 인터뷰 예정대로”

배우 박신혜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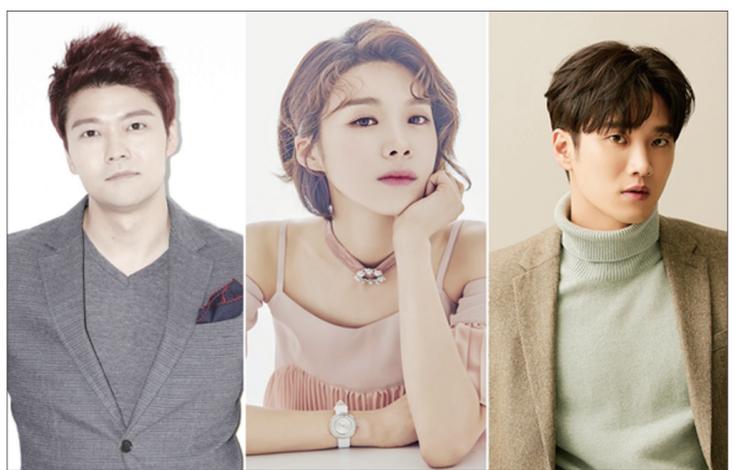
박신혜 소속사 측은 24일 “음성 판정을 받아 스케줄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신혜는 이날 넷플릭스를 통해 27일 공개를 앞두고 있는 영화 ‘쿨’ 관련 온라인 인터뷰

가 예정됐다.

앞서 박신혜는 촬영 중인 JTBC 드라마 ‘시지프스: 더 미스’의 보조 출연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으며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보조 출연자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지만 대비 차원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전현무·장도연·안보현, MBC 방송연예대상 MC

내달 29일 진행

방송인 전현무, 개그우먼 장도연, 배우 안보현이 ‘2020 MBC 방송연예대상’ MC를 맡는다.

MBC는 24일 전현무, 장도연, 안보현이 다음달 29일 진행되는 ‘2020 MBC 방송연예대상’에 MC로 나선다고 밝혔다.

“나 혼자 산다”, ‘전지적 참견 시점’, ‘트로트의 민족’, ‘선을 넘는 녀석들 리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큰 활약을 보여준 이들의 신선한 조합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현무는 지난 2018,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진행자로 나서 눈길을 끈다.

그는 ‘2017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

차지한 데 이어 그동안 MC로서 자연스러운 진행을 보여주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여기에 지난해 2019 MBC 방송연예대상 베스트 엔터테이너상 수상 후 “방송 3사 연예대상에서 상을 받은 게 처음”이라며 감동적인 소감을 밝혔던 ‘예능 대세’ 장도연의 MC 변신이 주목된다.

전현무, 장도연과 함께 MC로 새로운 매력을 선보일 배우 안보현의 모습도 눈길을 끈다.

올초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쓰’에서 강력한 악역 연기를 선보임에 이어 ‘나 혼자 산다’를 통해 반전 스윗 매력을 발산한 안보현은 데뷔 이래 첫 생방송 MC에 도전할 예정이다.

이종석, ‘마녀2’ 특별출연...“다음달 소집 해제”

박훈정 감독과 영화 ‘브이아이피(VIP)’ 함께한 인연

배우 이종석이 영화 ‘마녀2’에 특별출연한다.

이종석 소속사 측은 24일 “영화 ‘마녀2’(감독 박훈정) 출연을 논의 중이다”고 밝혔다.

이종석은 박훈정 감독과 영화 ‘브이아이피(VIP)’를 함께한 인연으로 ‘마녀2’ 특별출연 제

의를 받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근무 중인 이종석은 다음 달 소집 해제를 앞두고 있다.

‘마녀2’는 2018년 개봉한 영화 ‘마녀’(감독 박훈정)의 속편이다.

당초 워너브라더스코리아에서 투자 배급을 맡았지만 한국 영화 사업을 철수하면서 제작이 불투명해졌다.

이후 NEW의 콘텐츠제작사업 계열사 스튜디오앤뉴가 박 감독의 영화사 금월에 대한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하며 프로젝트 시작을 알렸다.